

권상우·이종혁 밝힌 #두번할까요 #이정현연애 #말죽거리

SBS라디오 파워FM '박선영의 씨네타운'에 게스트 출연

"굉장히 유쾌하고 지루하지 않아...결혼·연애 진지한 고민도"

'두번할까요'로 15년 만에 재회한 배우 권상우, 이종혁이 남다른 입담을 뽐냈다.

14일 오전 방송된 SBS라디오 파워FM '박선영의 씨네타운'에는 영화 '두번할까요' 권상우, 이종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권상우는 "이번주에 영화가 개봉한다"며 앞서 '두번할까요' 300만 공약으로 '소라게'를 다시 재연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는 약속 꼭 지킨다. 드라마 '슬픈연가'에서 나온 소라게 패러디를 하기로 했다. 그걸 원하시니까 아주 똑같이, 영상으로 올릴 생각이야. 진지하게 연기할 것이다. 그때 감정 살려서"라고 밝혔다.

이어 이종혁은 '권상우씨가 소라게를 하고 이정현씨가 '와' 한다고 그랬던가. 근데 내가 할 게 없더라"며 "그래서 김을 구우시면 어떠냐. '아빠 어디가'에서 김을 구운 적이 있어서 구워서 해드

리려고 한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종혁은 최근 헐리우드에 진출한 것과 관련 "헐리우드 진출했는데 대사는 있다. 그냥 잠깐 경험 삼아서 들어간 건데 일이 커진 것 같다.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뤄졌는데 더 경험하고 싶다. 저도 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사람인지 모른다"고 소개했고, 권상우는 "마동석 넘어야 한다. 이제 한국 작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두 배우는 15년 만에 영화로 만났다. DJ 박선영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이후 15년 만에 재회했다"고 말하자, 권상우는 "사실 연기하면서 같이 했던 배우와 두 번 만나는 건 쉬운 게 아니다. 굉장히 인연이 있는 거다"라고 했다. 이에 이종혁도 "그렇다. 예전 흥행했던 작품의 신을 두 배우가 시간이 지나서 똑같이 한다는 건

아마 없을 것이다.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권상우는 '두번할까요'에 대해 "굉장히 유쾌하고 지루하지 않고 극장에 오셔서 많이 웃고 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과 연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라며 "이혼식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납득이 된다. 그러다 솔로 생활을 즐기는데 전 와이프가 등장하면서 이종혁도 등장한다. 헤어지신 분이냐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모두 각자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이종혁은 "여자들이 좋아하시더라. 첫 장면이 이혼식이라. 그리고 권상우씨 리액션 보고 좋아하시더라"고 했다.

권상우는 '말죽거리 잔혹사'의 명장면을 오마주한 것에 대해선 "작년 가장 더운 여름에 같이 찍었다. 아무래도 처음엔 추억의 영화 속 명장면을 하는 게 조심스럽

더라. 그런데 그 장면 때문에 우리 영화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이 영화에서도 많이 터진다"고 덧붙혔다.

권상우는 지난 4월 결혼한 이정현에 대해 "정말 저희가 영화 끝날 때까지 연애하시는 걸 몰랐다. 영화 후반부에 연애를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대전에서 촬영을 대부분 했는데, 강아지 핑계 대면서 서울 스케줄을 굳이 올라가서 소화하더라. 그때 의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DJ 박선영이 '이정현씨가 결혼 후 오후 9시30분 이후로 단독방에서 말이 없다더라'고 하자, 권상우는 "저희가 감독님과 넷이 단독방을 만들었는데 늦은 시간에는 답장이 없어진다"면서 "이정현씨는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더라"고 덧붙혔다. 그러면서 이종혁은 신혼인 이정현에 대해 "좋은 때다. 지금이라도 많이 좋아야 한다. 그래야 '야별'이란 게 있지 않느냐"며 "저도 결혼 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권상우는 손태영에게 프러포즈한 일화를 밝혔다. 그는



"열기구에서 했다. 동 틀 때 열기구가 새벽녘에 뜬다. 그래서 호주에서, 목걸이 걸어주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다. 그러더니 웃어 주더라. 웃었다"고 했다.

세차장을 운영하는 권상우는 "세차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자주 간다. 위에 사무실이 있어서 대본도 보러 가고 그런다"고 했고, 부동산 정보에 대해 "저는 발품을 많이 팔았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보도 알고 법률이나 상권도 알게 되고 그랬다"고 밝히기

도 했다. 또한 이날 권상우는 '드래곤 플라이' 자세를 취한 운동 사진을 보여주며 "코어 히팅 있어야 한다. 주말 빼고 운동한다"라고 덧붙혔다.

한편 '두번할까요'는 생애 최초 이혼식 후 N차원 와이프 선영(이정현 분)에게서 해당된 현우(권상우 분) 앞에 이번에는 옛 친구 상철(이종혁 분)까지 달고 다시 그녀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세 남녀의 싱글라이프를 다룬 코믹 로맨스 영화다. 오는 17일 개봉.

위너, 미니 3집 '크로스' 트랙리스트 공개

타이틀곡은 'SOSO'

그룹 위너의 새 앨범 '크로스'(CROSS) 트랙리스트가 공개됐다. 위너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4일 오전 10시 공식 블로그에 위너의 세 번째 미니앨범 '크로스' 트랙리스트 포스터를 게재했다.

위너는 이번 앨범 전곡 작사·작곡에 참여해 이번에도 자신들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첫 번째 트랙이자 타이틀곡인 'SOSO'를 시작으로 'OMG' '베입 어 (DRESS UP)' 'FLAMENCO' '바람(WIND)' '끄덕끄덕(DON'T BE SHY)' 등 총 6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SOSO'는 강승윤이 작사·작곡하고 송민호 이승훈이 작사했다. YG 프로듀서 AIRPLAY가 작곡·편곡 작업을

함께 해 완성도를 높였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위너의 모습에서 'SOSO'가 여름 시즌 내놓은 앨범의 청량함과 또 다른 분위기의 음악임을 짐작하게 한다.

더불어 이승훈과 강승윤의 솔로 곡도 트랙리스트에 각각 포함됐다. 이승훈의 솔로 곡 'FLAMENCO'는 그가 작사·작곡하고, 강유진 Diggy가 공동 작곡·편곡자로 이름을 올렸다. '바람(WIND)'은 강승윤의 솔로곡이다. 이 역시 강승윤이 작사·작곡하고, 강유진 diggy HOYAS가 작곡·편곡에 힘을 보탰다.

이 외에도 '크로스' 앨범에는 FUTURE BOUNCE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줬다. 한편 위너의 미니 3집 '크로스'는 앨범 타이틀처럼 각자의 방향과 특색을 지닌 네 멤버가 모여 새



로운 교차점이 된, 그들의 관계성·음악·스토리를 담고 있다.

위너는 '크로스'를 오는 23일 발매하고, 같은달 26일, 27일 서울 KSPO DOME(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WINNER 'CROSS' TOUR IN SEOUL)를 통해 팬들과 만난다.

조동혁, OCN '루갈' 합류...살인병기 캐릭터 변신

기계인간이 되기를 자처한 특수경찰조직 이야기

배우 조동혁이 머지않아 OCN 휴먼액션 히어로 '루갈'을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내년 방송 예정인 '루갈' (극본 도현/연출 강철우)은 각자의 사연으로 상상의 아픔을 품은 채 생사를 오가는 부작용을 극복하면서까지 기계인간이 되기를 자처한 특수경찰조직 루갈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악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다. 앞서 배우 최진혁이 출연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루갈'은 극악무도한 악에 맞서 싸우는 기계 병기가 되어가면서도 싸움의 정당성에 대해 고민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기계화 될지라도 인간성을 지켜내고자 노력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한 가치를 증명한다. 특히 현실성 있는 소재들을 과학과 접목시킨 극강의 사이언스 액션은 기계화 된 인물 캐릭터의 설득력을 더하며 통쾌한 눈요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혁은 특수경찰조직 루갈의 조장으로 진지하고 과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흥분하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의 소유자 태우역을 맡았다. 태우는 한번도 저본적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격투술을 지니고 있음에도, 하루도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인물이다. 조동혁은 최고의 살인 병기 캐릭터로 스토리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끌어갈 예정이다.



한편 조동혁은 지난 여름 채널A 드라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에서 슬럼프에 빠진 천재 화가도 하운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루갈'을 통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